

대전광역시의회 “로봇랜드 대전 유치” 강력 촉구

- 8월 16일 김영관 시의회의장 로봇랜드 대전유치 촉구 기자회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8월 16일 오후 2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전략산업의 대표 주자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대전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시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시의원과 각 구 의회를 대표해 유성구 임재인 의장과 대덕구 이재현 의장이 자리를 함께 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영관 시의회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현재 로봇랜드 대전 유치 촉구를 위해 산업자원부장관과 면담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일정이 잡히는 데로 시·구의회 대표단과 함께 대전 유치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동안 국책 사업 유치를 행정적 차원으로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가 실패

되면 충청권 홀대론 또는 소외론 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대전시민을 비롯한 모든 단체 등이 하나 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이 역할을 대전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 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당초 산업자원부에 총 11개 자치단체가 신청하였으나 최근 울산이 사업계획서를 철회함에 따라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 빈증성 인민의회 대표단 대전 첫 방문

“양 도시 경제 협력·우호 다진다”

- 8월 27일 빈증성 인민의회 성장일행 시의회 및 대덕특구 방문



베트남 빈증성 인민의회 대표단 17명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를 방문하고 대덕특구 등 대전의 대표 연구기관을 시찰했다.

지난 2006년 10월 31일 빈증성 인민의회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대전광역시의회와 베트남 빈증성 인민의회는 베트남측 대표단의 대전 방문으로 두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부민상(Vu Minh Sang) 빈증성 인민의회 의장과 부득탄(Vu Duc Thanh) 부의장 등 17명의 빈증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도시간 교류협력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대전의 IT 및 과학기술 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대덕특구 내 (주)대덕테크노밸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양도시간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알리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각종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이정희, 김인식, 권형례 의원 등 대전시의회 3인의 여성의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대전광역시-빈증성 여성 의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빈증성 인민의회는 중국 난징(2000.11.14)과 일본 오다(2001.2.15)에 이어 세 번째 교류협력도시로서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여 발전 잠재력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을 추진하는 등 경제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빈증성은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인 호

치민시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의 경제 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 한국 기업의 진출이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006년 10월 31일 베트남 빈증성을 직접 방문해서 양도시간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다.

전국 광역시 최초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 근거마련

- 권형례 의원발의 11월 9일 제170회 정례회서 추진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가 특별시 및 광역시 최초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이상 출산한 자로서 신생아에게는 출산장려금을 1회에 한하여, 셋째자녀 이상 영유아에게는 양육지원금을 35개월 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권형례 의원(국민중심당 비례대표)은 10월 4일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책간담회에는 민간분야로 김소향 건양대학교 유아 교육과 교수를 비롯해 자치구의회의 의원, 차정자 대전광역시보육

시설연합회장, 최희숙 대전광역시유치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출산 및 양육관련 주부, 시민단체 및 언론 관계자, 대전광역시에서는 나인순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자치구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책간담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정책좌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금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 등을 수렴한 후 11월에 열리는 제170회 정례회에 의원발의로 본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 이다.

권형례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월 19일 제169회 임시회 마지막날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을 촉구한데 이어 다음날(20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본 촉구안 취지를 설명하고 조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관련 국비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서 곧이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형례의원(비례대표)은 “저출산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을 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부산, 대구, 울산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 사업들과는 달리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 최초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는 지난 9월 21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비롯한 관련 장관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당대표 등 총 15인에게 건의문을 발송한바 있다.

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15일간 대자정 마침표

- 9월 19일 제2차 본회의 개의, 42개 안건 채택

- ‘여성권익향상’ 위한 조례개정·건의안 채택 눈길

총 괄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장 김영관)은 9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5개 안건에 대해 수정의결하는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채택한 후 지난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준홍 부의장이 대전광역시 대중교통망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고, 의원발

의로 제출된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한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대전광역시의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 권익향상 조례개정 등 눈길

이번 회기중 눈에 띄는 성과로는, 금일(19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권형례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김인식 의원의 9인이 발의한 여성 수영장 이용시 생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안,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운영조례

안,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의 나이를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사항을 삭제하는 등 여성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안전·지역발전 저해요인... 발빠른 대처

또,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저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했다.

최근 시민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높시료 분실사고와 관련 관리감독 강화 및 신속한 사고처리와 대시민 사과 성명서 발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리높시료 분실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이상태의원의 9인이 발의하여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였고, 김영관 의장은

금일(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관련 건의촉구안을 채택,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에 있다.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정섭)에서는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감시했으며, 정책의회로 나아가기위한 의원들의 지적역량 강화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지난 14일 고려대학교 이지경 정치학 박사를 초빙, ‘세종대왕의 국가경영과 정치적 리더십 학습’을 주제로 의원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